병증 발생율을 보였으며, 수술후 재원기간은 평균 37.6시간 (16~100시간)이었다.

결 론 : 최소침습 갑상선 수술법은 새로운 수술기구의 도입 없이도 갑상선 수술의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전하고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, 기존 수술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전통적인 수술법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된다.

3

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부갑상선 미세박리술

최종욱* · 정광윤 · 김혜정 · 최 건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-두경부외과학교실

배 경 : 분화성 갑상선암종은 갑상선 전절제술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데, 술 중 부갑상선의 손상으로 이환율이 높다. 부갑상선을 확인하여 온전히 보존함으로써 부갑상선 기능저하를 방지함은 물론 갑상선 잔여조직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갑상선 암종의 근치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.

목 적 : 부갑상선을 미세박리술로 보존함으로써, 갑상선 전절제술후 이환율을 줄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 : 분화성 갑상선암종으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였던 18례(유두상선암종 16례, 여포상선암종 2례)를 대상으로 하였다. 술중 갑상선을 완전 노출시킨 후 수술현미경(OMMI-ORL, Stativ S5, Carl Zeiss)을 이용하여 부갑상선을 확인하고 미세 박리하여 부갑상선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한 후 갑상선을 전절제하였다.

결 과 : 18례중 15례에서 부갑상선을 성공적으로 확인한 후 보존함으로써 부갑상선 기능저하가 없었으나, 3례에서 부갑상선의 확인에 실패하였다. 이중 2례는 종양의 피막외 침습으로 확인이 어려웠고, 1례는 림프조직으로 오인되어 4개의 부갑상선 중 2개가 희생(incidental parathyroidectomy)되었다. 술 후 옥소 동위원소를 이용한 촬영결과 갑상선 잔여조직도 최소화 시킬 수 있었다.

결 론 : 수술 현미경을 이용한 부갑상선 미세박리술은 부갑상선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갑상선 조직을 완전 절제 가능케함으로써 갑상선 종양수술시 이환율과 술후 동위원소 치료기회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.

4

기능적 경부청소술(Type Ⅲ MRND)의 변형법

최종욱* · 정광윤 · 김혜정 · 최 건
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-두경부외과학교실

배 경 : 경부의 주요 기관, 혈관과 신경을 보존하는 변형적 경부청소술이 술 후 견갑증후군, 안면부종 등의 이환율이 적어 적극 권장되고 있으나 수술시야의 확보가 어렵고, 시술시간이 많이 걸리며, 시술범위를 확장 적용 하는데 한계가 있다.

목 적 : 임상에서 가장 흔히 시술되고 있는 변형적 경부청소술 중 제Ⅲ형인 기능적 경부청소술을 변형 시행함으로써 종양수술의 시술목적에 합당하고, 시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그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.

대상 및 방법 : 최근 3년간 기능적 경부청소술이 필요하였던 두경부암종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. 수술방법은 피부절개와 피판박리후 부신경을 확인하고 흉쇄유돌근의 쇄골측 부착부위를 절제한 후 내경정맥을 박리하였다. 측하방부터 림프조직이 포함된 결체조직을 측상방으로 박리한다. 특히 제2구역(level Ⅱ)의 림프선 포함조직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복근의 유양돌기 부착부를 확인하면서 내측방향으로 적출물을 견인하면서 경부청소술을 시행하였다.

결 과 : 5례에서 견갑증후군, 3례에서 동측 경부재발이 있었으나, 2례는 원발병소와 동시에 재발된 경우이었으며 전례에서 내측쇄골상부의 함몰이 관찰되었다.

결 론 : 흉쇄유돌근의 쇄골측 부착부를 절제하는 변형 경부청소술은 수술시야확보가 양호하여 주요 혈관과 신경의 확인이 용이하며, 수술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추천할만한 시술법이라고 생각된다.

5

Supracricoid laryngectomy with Cricohyoidoepiglottopexy

김용재* · 김영모
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과거 전 후두 적출술을 시행했던 일부 후두암 화자에게